

숲 정 이

연중 제3주일

제1독서 : 요나3,1-5.10

제2독서 : 1고린7,29-31

복 음 : 마르1,14-20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뉘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마르1,15).

강론

시간이 없다

김광태 신부 / 숲정이 성당

가끔 할 말이 없는 경우를 만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생기넘치는 젊은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일 것이다. 인생의 출발점에서 맞게 되는 죽음은 하나님의 심보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그렇지만 70세든 80세든 간에 살 만큼 살고 갔다고 말하기는 여전히 곤란할 것 같다. 돌아보면 짧지 않은 인생이 없기 때문이다.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품잡은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무덤 앞에 와 있다는 것, 노인이 아니라도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모든 사람이 절망감을 갖게 되는 근본 이유중 하나이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서 내가 받은 대표적인 인상이 있다면 ‘너무 서두른다’는 거다. 바울로 사도는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니까 장가들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장사하고 하는 따위의 일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 역시 그물마저 잘 챙겨놓고 떠날 겨를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일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세상의 종말은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는데 아마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한 모양이다.

그런데 누가 착각하고 있을까를 따져 보면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우주론적인 종말까지 갈 것도 없이 죽음은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이다. 언제 죽을 지 모르면서 우리는 무슨 근거로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 일을 약속하는 걸까? 믿을만한 아무 것도 없으면서 내일이 주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신앙인이다. 물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우리에게 제대로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지금뿐이다. 한 시간이 아니라 단 십 분 후도 장담할 수가 없다. 요나의 선언을 듣고 즉시 단식에 돌입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당장 뉘개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미 늦다. 시간은 우리를 위해 멈춰주지 않는다.

소리

신기료 장수의 나눔

경기전 옆 공터에는 작은 구두병원이 하나 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병원에는 아주 멋진 말씀이 적혀 있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그 내용은 대개 이렇했다. - 「오늘 버는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면서도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아닐 수 없다.

그 신기료 장수의 처지로 보아서 그의 경제적인 처지가 결코 넉넉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제 몫의 밥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참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보다 더 값진 보물을 이웃들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우리들의 삶은 상당히 풍요로워졌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는 가난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 과학문명의 발달로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음에도 심신의 병고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하면 가족들과 더불어 살 수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목말라하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마태오 25장 31-46절)이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라는 1월 끝주일(사회복지주일)을 앞두고 나눔의 참 뜻과 그러한 삶이 주는 기쁨을 배우자. 나눔은 자신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 卍



가정의 해-모범 가정을 찾아서 ①

채옥석·김옥선(치릴라)의 가정

군산 팔마 성당

남녀가 결합하여 삶을 꾸리게 되면 칭하여 가정이라 한다. 교회는 나자렛 가정을 모든 가정의 원형으로 보고 성요셉을 본받아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가르친다. 물질 문명의 풍요와 핵가정, 가정 이기주의가 팽배한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어떻게 연계시켜 따를 것인가에 간략히나 성서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요셉은 늘 그들의 지팡이였고,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는 내성의 수도자였으며,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인으로서 기도하고 순명하는 삶을 꾸렸다. 예수님 또한 공생활 동안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의 바르며 효성스런 아들이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과 효성과 신앙이 함께 어우러진 한 가정이 있어 찾아본다.



군산시 경암동 팔마 성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채옥석·김옥선(치릴라) 부부의 가정이다. 위로 85세 되신(문선옥·루갈다) 노모를 모시고, 아래로 아들 수진(다니엘·31세), 며느리 홍은칠(사라·27세), 생후 5개월 된 손주 승일(요한)이와 군복무를 마치고 갓 제대한 셋째 아들 수호(28세),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다. '성실'을 가훈으로, 아침에는 희망을 갖고, 낮에는 노력하며, 밤에는 반성을 한다는 이 가족들은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 여기에는 가장인 채옥석 씨의 몫이 크다. 연로하신 노모를 정성을 다해 편안히 모시고, 미더운 지아버로서 금실 좋은 부부애의 덕을 실천하며, 자녀들의 일사를 낱낱히 헤아려 관용과 사랑으로 보살핀다. 그뿐이 아니다.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후원하고 격려한다. 딸아들 수중 씨가 결혼하여 직장 따라 서울로 분가해 나가고, 둘째인 수진 씨도 결혼 후 가풍을 익힌 적당한 시기에 분가시키고자 했으나, 아들 내외가 함께 살기를 고집하여 거느리게 되었다. 가사 노동의 수고로움은 서로 분담하고 세대간의 갈등과 어려움은 대화로써 풀어간다.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갖는 대화, 함께 저녁기도를 바치고,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고부간이 저녁 잡자리도 종종 함께 한다 하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닌 사랑스런 친 모녀지간이다. 노모가 계시니 연로하신 동네 어른들이 무시로 찾아온다. 때마다 조출한 간식을 대접하고 휴식공간을 내어드리니 경노와 효를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족 모두가 자신들의 역할에 성실하므로

가장으로서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며 정을 나누는, 그러한 인간재미를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웬지 이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이 집안에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 4년 전, 부인 김옥선 씨가 세례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시모님과 아들을 입교 영세 시켰으며 가정을 성화시키기 위하여 구교 집안의 신심 깊은 따님을 며느리로 맞았다. 인간은 학습적 동물이다. 노모를 지극 정성으로 모셨고, 슬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다스렸으니 노후에 아들 며느리의 효도를 받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다. 증손주를 안고 나오셔서 자랑하시는 복되신 할머니, 어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며 매사에 성실하게 임할 때 평화로움을 느낀다는 아들, 가족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 희생과 봉사 없이는 가정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남편을 사랑하기에 가족 모두를 섬긴다는 며느리, 이들의 모습에서 순종하는 온유함과 잔잔하게 흐르는 행복이 있음을 느낀다.

거실에 성모상을 모셔놓고 작고 예쁜 병풍이 둘러 있다. 성모님이 추우실까봐 그렇게 헤드렸단다. 천상 배필이신 성모님께서 추우실리아 없겠지만 그토록 지순하고 아름다운 심성이 어디서 왔을까? 거기 분명, 우리 주 하느님의 영이 거하셔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심이 아니겠는가? 아버지인 채옥석 씨와 셋째 아들 수진 씨도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총을 입어, 가정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간구해드린다.

<p>우리온돌 전복총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로 50% 절약 24시간 따뜻 · 보일러용, 전기용(심야전기보일러) · 원적외선 켈질용 건강침대 <p>강우금(대건 인드레아) 주임순(바울라)</p> <p>☎ 78-1363, 1431</p>	<p>숲정이 상회</p> <p>쌍방울,백양,태창,각종 양말</p> <p>이 완 기(베 드로) 조 규 레(올리안나)</p> <p>구 남부배차장 영신당 한약방 앞</p> <p>☎ 88-7012</p>	<p>한국 최고의 유행수질</p> <p>전주 송산 온천</p> <p>최대의 시설, 신비의 모래찜</p> <p>국 장 호(요 셉) 유 숙 자(수산나)</p> <p>☎ 88-0887, 88-0888</p>	<p>축! 개업</p> <p>키친아트 전주특약점</p> <p>혼수, 주방용품, 도자기 공장도자 판매, 각종 선물 답례품 상담</p> <p>변희철(요아킵) · 한미영(글라라)</p> <p>효자동 신광빌딩 9층</p> <p>☎ 224-8489</p>
--	--	---	--

라는 말로 표현되는 환경문제와 그보다도 더 무서운 현대 인간의 정신적 파멸과 추세를 되돌려 모든 인류가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여덟 가지 행복의 길을 실제로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 신부님께서서는 거의 60년이나 되는 사제 생활 모두를 이 참된 행복의 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빠치지 않고 다 밟아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리시다가 어떤 때 낚시라도 해서 제대로 잡수실 수가 있게 되면 신부님의 표현대로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만족스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잘 따르던 사람이 일제가 몰려나고 공산주의 세상이 되니까 공산당들에게 잡혀죽지 않기 위해서 신부님을 고발하고 인민재판에서 가장 심하게 뺨까지 때리는 사람을 보시고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신 일, 중국 통치자로 등소평이 등장하여 모든 종교에 자유가 허락된 다음에도, 교황께 대한 충성을 그만 두고 애국교회에 가입하라는 끈질긴 요구를 거절하시어 끝까지 숨고 쫓기며 사실 수밖에 없었던 처지. 우리는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신부님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덟 가지 행복의 길로 표현된 주님의 복음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신 삶이 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신부님께서 직접 슬회하셨던 한두 가지 조그만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밀려와 세상을 장악하고 인민재판의 선풍을 일으키던 때, 피난을 갈 수도 없고, 공산주의자들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니 교우들은 벌벌 떨면서 신부에게 와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심하지만 우린들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렇다 해서 우리가 먼저 도망할 수도 없고, 교우들에게는 위로의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교우들이여, 놀라지 말고 용감합시다. 천주께서 주시는 보속을 어찌 마다 하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죽음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잘 참을 수 있는 덕을 주시라고 구합시다.” 할 뿐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길었던 옥살이를 마치시고 거기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십니다.

“8년간 감옥생활하면서 고통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정신상으로는 아주 유쾌하게 성스럽게 보냈다.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 너희를 도우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수께서 짊어지신 무거운 십자가가 내 마음에 무량한 위안을 안겨주었다. 내 고통이 아무리 큰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에 어찌 비할 수 있으랴.”

지난 일 년간 신부님께서 교구에 돌아와 사신 기간은 신부님께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얼어붙은 땅에서 살아오시는 동안 신부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일부까지도 얼어붙을 수 밖에 없는 면도 있었습니다. 도착하셔서 상당기간 동안 신부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셔야 할지 정말 곤혹스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부님의 마음은 녹기 시작했고 신부님은 마치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듯이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김선영 신부님이 1970년에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신부님과 함께 중국에서 모진 고생을 같이 당하시다가 결국 감옥에서, 또 농장에서 반신불수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끝에 돌아가신 김선영 신부님의 영전에 신부님 자신이 하였던 말씀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2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신 순교자, 거룩한 신부님, 당신의 그 위대한 행적은 영원히 빛날 것이며, 당신의 그 빛나는 이름은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같은 말로 신부님 영전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겠습니다.

“아! 중국 선교 5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거의 모두 감옥에서 보내시고 감옥 밖에서 보내신 기간마저 가톨릭 사제로서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 늘 숨어다니시며 사실상의 감옥생활을 한 순간도 면치 못하셨던 순교자, 거룩한 사제 임복만 신부님, 육체적으로는 비록 당신의 모습이 우리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셔도, 그 거룩하고 자랑스런 삶은 우리 신앙인들과 당신의 후배 사제들,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똑똑히 보아둔 신학생들의 가슴속에 언제까지나 살아계실 것입니다. 임복만 바오로 신부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나선 길이 그 옛날 아브라함의 길처럼, 길고 험난했지만, 당신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쫓아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내셨습니다. 이제는 그 슬프고 초조한 삶이 끝났으니, 눈물도, 고통도, 울부짖음도, 배신도, 인민재판도, 강제노동도, 추위도, 배고픔도, 헐벗음도, 고독도 없는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임복만 (바오로) 신부

살아 있는 순교자 임복만(바오로) 신부, 그냥 우리 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사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던 신부님! 그런 신부님께서 지난 1월15일(토) 새벽 3시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시고 하느님 품안에 안기셨다.

86년의 삶, 사제생활 59년, 중국 선교 50년, 그리고 귀국 1년 16일…….

중국 선교 50년 동안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 거의 모든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시고, 감옥 밖에서도 목자 잃은 양들을 찾아 끊임없이 죽음과 싸우셨던 신부님의 순교자적인 삶을 생각하며 신부님 가시던 날을 그려본다.

아무도 임 신부님이 중국에서 얼마나 전교에 충실했고, 그래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묻지 않고, 단지 50여년 동안 사제로서 그곳에서 사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분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가게 되는 곳마다에서 참사제로서 살고 싶다.

김광대(야고보) 신부

사제로서 생을 마친 것에 대한 존경심과, 순교자적인 모습에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다운 사제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되었습니다.

이상용(야고보) 신학생

임복만 신부님께서 신앙에 대한 인내와 용기로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중국 땅에서 선교생활하셨던만큼 또 한 몸으로, 말로 침묵하셔야 했던 순교도 무척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명감에 감명깊었습니다.

이안젤라 수녀

긴긴 세월 당하셨던 박해를 마감짓게 하시고 육신의 고향인 우리 전주교구로 보내시어 선종하시도록 배려해 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신 인도주의자이셨으며, 애국자이시고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이 시대의 살아 있는 순교자이셨

습니다. 신부님의 평안한 안식을 위하여 많은 기도드립니다.

평신도 대표 황의옥(파로) 회장

한 선교 사제로서 순명하여 인고의 삶을 살아내면서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고자 하셨던 임 신부님은 우리의 좋은 표상이 되십니다. 그 분이 사셨던 생의 한 토막 토막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깊게 느낍니다.

김정희(루시아)

임복만(바오로) 신부님께서 귀국후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정성어린 기도와 봉사, 물심양면으로 조위까지 베풀어 주신 주교님과 제위 신부님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께 머리숙여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신부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순교자적인 삶은 저희 가족들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고 기억될 것입니다
유가족 일동



돌아가시던 날

사랑, 기쁨 자체였던 우리 신부님

하느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며, 늘 기도하셨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며 매순간을 화안한 미소로써 보내셨던 우리 신부님!

“신부님. 울지 마세요. 산 햇불이신 신부님께서서 울으시면, 햇불이 꺼지게 되어 연기가 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눈물을 거두어 주셨고, 하느님 안에서 에덴동산에서처럼 살 것을 청했을 때, 순한 어린 아기로 편하게 적응해 주셨던 선한 신부님!

불편하신 몸으로도 기도하실 땐 두 무릎을 꿇고서 몇 시간이고 십자가를 우러러보시고 방바닥에 이마를 대시며 주님께 경배하셨던 신부님!

하루의 시작을 이 종이 “신부님! 이 날은 주께서 마련하신 날, 알렐루야!” 하면, 신부님께서 “이 날을 기뻐하며, 춤들을 추자! 알렐루야!” 아침 성무일도 바치면 강복주시며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해주시고, 밤이면 “전능하신 천주여,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아멘.” 하루하루가 부활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즐겨 보시던 비디오, 안경도 안쓰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던 가톨릭 신문, 성가를 불러주면 좋아하시면서 손뼉을 치시던 우리 신부님! 방문해주던 신자들과 손잡고 친구하실 때마다 행복해 하셨던 우리 신부님. 성체를 모실 때를 준비하시며 성체 후에 조용히



안인순(요안나)

오랫 동안 목상하셨던 신부님!

서울 가톨릭 신학교·스승 예수의 수녀원·절두산 새남터·미리내, 수원 꽃동네·목포·진도·부산·부곡은천·광주신학교·변산·남원·되재·천호·군산 둔용동·나바위·고산·부산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수녀회·치명자산·운암 칠보발전소·동물원·박물관·완산칠봉·성체수녀원..., 인후동·노송동·평화동·중앙·금암·덕진·숲정이·전동 성당에서 초대해주시던 달력에 표시하시고 손꼽아 기다리시며 즐거워 하시던 신부님!

고 김영일 신부님 장례미사 후 감개 무량해 하셨던 놀라움. 새 사제 서품미사 후 흐뭇해 하시던 모습.

단 한번의 불평도 안하시고 “첫째도 순명, 둘째도 순명, 셋째도 순명, 넷째도 순명입니다.” 순명은 신앙생활의 모체라고 강조하셨던 신부님. 사제들은 주교님께 순명하고, 교우들은 사제들에게 순명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며, 특별히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던 신부님!

신부님과의 1년 13일간은 삶의 은총이요, 하느님 사랑의 실존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희생, 각별히 하느님께서 신부님을 사랑하사 비천하기 그지 없고 결점 투성이인 요안나를 도구로 간택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매순간 성체, 그 분의 능력에 힘입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불편하신 몸으로도 마음 가득히 한 본당의 사제로 살 아보시길 소원하시던 우리 신부님! 마지막 부르시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느님.....”

천당에서 기도해주신다던 우리 신부님. 지상에서 신부님 위해 기도드리겠다던 요안나. 서로의 약속 지키며 성인들의 통공을 믿겠습니다. 신부님도 이 종도 여한이 없습니다.

참으로 좋으셨던 우리 신부님! 사랑·기쁨 자체였던 우리 신부님! 한국 교회, 전세계의 교회를 굶어보시고, 하느님 품안에 평화 누리옵소서. 아멘!



임복만 신부님 장례미사

1994년 1월17일 중앙성당

우선 오늘 임신부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중에도 많이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선임 주교님으로서 임 신부님이 우리 교구에 오시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애를 써주신 박정일 주교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지난 해 정초에는 중국 선교 50년 만에 임박으로 신부님께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는 한 해를 벅찬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지금, 우리는 임 신부님을 하느님 품에 안겨드리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86년의 삶, 사제생활 59년, 중국선교를 떠나신 후 52년째 되는 해, 그리고 귀국하신지 꼭 1년 16일만에 글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시고 하느님께로 가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몸이 불편하시고 특히 언어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도 참으로 많은 곳을 가보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으며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지난 성탄에는 신부님께서 젊으셨을 때 주교좌 성당이었던 전동 성당에 가셔서 자정미사를 함께 봉헌하시고서는 이제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졌으니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시고 지난 3일에는 병자성사를 받으신 후, 신부님의 의사에 따라 퇴원하신 다음 날 선종하셨습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마지막 얼마 동안이나마 흐뭇하고 기쁘게 사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부님께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실만큼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드렸던 안요안나 자매님, 또 그 동생되시는 논나 자매님, 전북대학 병원 당국과 주치의였던 안득수 박사 및 최덕자 간호사와 병원 봉사자 여러분, 매주에 신부님을 여기저기 모시고 다녔던 전주교구 가톨릭 운전기사회 회원 여러분, 군산 화은회 여러분, 중앙 성당의 베로니카 자매와 조마리아 자매님, 이후동의 에우프라시아 자매님과 막달레나 할머니, 서울 스승 예수의 제자수녀회 및 수녀원 봉사자들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미사를 드리실 수 없는 신부님을 도와 함께 미사를 봉헌해주신 젊은 신부님들과 돌아가신 순간부터 밤낮으로 신부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서서 훌륭하신 선배 신부님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해주신 신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일 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하느님의 묘한 섭리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지내놓고 보니, 임신부님의 긴 생애에서 지난 1년간은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었고, 아차 했으면, 우리가 신부님을 한번도 가까이서 뵈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이국 땅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마지막 한 순간을 더 허락하시어 마치 천국을 향해 가시는 길에 잠깐 고향에 들러가시듯이 임 신부님께서 얼마 동안 우리 곁에 머물다 가시도록 안배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안배 속에서 우리는 주로 두 가지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구가 <살아 있는 순교자>의 모습을 직접 뵈오면서, 오늘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방금 마태오 복음에서 유명한 8가지 행복의 길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깊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면면들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금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며 이 부문에 관한 교황청 고문이기도 한 바바라 위드 여사는 오늘날 복잡하게 얽혀가고 각종 공해

잡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2. 가정 공동체, 가정 교회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양육되어 결혼 적령기에 이르면 부모를 떠나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 이러한 가정이 언제부터인가 삶의 보금자리로써의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연합이 올해를 '가정의 해'로 선포하고 교황 성하게서도 뜻을 함께하신 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거듭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며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이다. 더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모시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진정한 가정 공동체, 가정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한집안 식구끼리도 얼굴을 마주하기가 힘들게 오늘날 많은 가정의 모습이다. 가장은 이른 아침 출근길부터 교통난에 시달리며 생존 경쟁에 동분서주하다가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와서는 물먹은 숨처럼 잠에 빠져버린다. 주부도 안팎으로 분주하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집안의 살림꾼으로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다. 자녀들도 이에 못지 않다. 학교 공부 외에도 온갖 과외로 몹살을 앓고 있다. 또한 의젓한 열쇠 주인(?)이 되어 버린 어린이도 적지 않다.

온 가족이 좁은 방 한 이부자리 밑에서 지내던 시절, 비록 배는 고프지만 지금처럼 삭막하게 살지는 않았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체온이 있었다.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다가도 이웃이 찾아오면 숟가락 하나를 더 놓던 넉넉함도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부터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자. 바쁜 시간을 잠시 쪼개서라도 함께하는 자리를 갖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나눔은 이웃과 자리를 함께하는 소공동체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교구 소식

※ 사회복지주일 세계기아민돕기 제2차 헌금: 1월30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1.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회: 1월30일(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대상-군산·옥구·이리·익산지구 본당 사목위원.
2. 축! 광주가톨릭대학 합격자: 김병조(프란치스코·송천동), 김상용(요셉·복자), 김선엽(스테파노·용안), 김성봉(프레드릭·동산), 김종익(비오·서학동), 김형성(시몬·송정), 박상운(도마·삼례), 박현웅(미카엘·창인동), 양재식(요셉·용안), 염태성(요한·영등동).
3. 남성 47차 꾸르실료: 1월27일-30일 천호 피정의 집.
4. 중·고 전례부원 연수: 1월25일-26일 나바위 피정의 집.
5. 군옥지구 성서교실 특강: 1월26일(수) 오후7시 월명동 성당, 강사-이병호 주교.
6. 국악미사곡 교육: 1월31일(월)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강사-강수근 신부, 회비-4,000원, 준비물-성가책, 국악미사곡, 필기도구.
7. 이 루갈다 순교 기념미사: 1월27일(목) 오후2시 전동 성당.
8. 교도소 후원회 월례미사: 1월24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9.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1월28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10. 혼인강좌: 1월30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1인당 10,000원.

- 성소모임 울리베타노 성베네딕도수녀회: 1월23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0652)78-0094. 성가소비녀회: 수시로 성소 상담 (0652)223-3822.

요심이 (1065) 김병오



순정이 성지 및 유훈관 관리인 구함

1. 자격: 영세한 지 5년 이상 된 남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2. 제출 서류: ①자필 이력서(연락처 명기) ②본당신부 추천서 ③주민등록 등본 각1통 3. 제출마감: 1월25일(화)까지
4. 서류접수: 전주교구청 사무처 ☎ 85-0041 5. 선발자는 개별 통보함.

메주 팝니다

- 일시: 1.21(금)-1.23(일)
- 장소: 전동 성당
- 가격: 소두 1말 23,000원
-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 주문처: 74-5741, 224-7943 232-6268
- 가톨릭 전주교구 여성연합회

전주성삼수도회 성소 피정

- 때: 1.29 전 12시-30 후 3시
- 곳: 미리내 본원
- 대상: 중·고 및 대학생·일반인 (수사, 수사신부 지망)
- 준비물: 묵주, 세면도구, 회비 10,000원
- 문의: ☎ (0334)74-1251~2

코스모스 35인승 신 중형버스

성지순례 가실 분, 유치원 출퇴근, 임대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송인수(베드로) ☎ (0652) 252-6827 호출기 015-681-6827

(주) 선우관광

해외여행, 여권·비자·유학, 신희여행, 성지순례, 항공권 이종길(요한) 이희준(요한비안네) 전주 상업은행 옆 ☎ (0652) 87-9797 (0653)855-4302

이전! 개원 산농서실

고영선(마태오) 송준섭(로사리아) 효자우전 성당·삼호APT 앞 ☎ 225-5580

'94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안젤라) 호남(제일예식장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앞) 253-1411 효자(삼천쌍용APT앞) 221-833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3주일
1. 민수녀님 피정: 25일~2월3일, 많은 기도바람, 2. 중·고 전례 부원 연수: 25~26일, 나바위, 3. 남전주지구 국교 6년 졸업 피정: 28일, 진동 성당, 4. 유아세례: 29일 후 3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5. 주의 봉헌 축일: 2월2일, 제대초 및 가정초 축성 있습니다, 6. 노송신용협동조합 정기 총회 개최: 30일 12시, 7. 모임: ①제대회(25일 어머니미사 후) ②빈첸시오회(27일 전 10시30) 8. 말릴: 다음주일(30일)은 사회복지주일입니다. 세계 기아민을 위한 2차 헌금있습니다, 9. 금주 청소: 중노18, 19번, 차주 청소: 중노23, 24번.

□ 지난주 봉헌금: 1,046,140원 □ 교무금: 1,313,000원

*** 복사**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영

1. 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 다음주일에 있습니다.
2. 초 봉헌: 2월2일(주의 봉헌 축일) 제대용 초와 가정용 초를 수녀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회합: ①제대회-27일 오전 10:30
②병자 봉성체-28일(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③유아세례: 29일 오후 6:30
4. 영광갈비 판매: 2월6일(복자 울프레이)
금주 전례: 해설-조옥례, 독서-강주호 씨 부부
봉헌-유복규 씨 가족
차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김현덕 씨 부부
봉헌-지해룡 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35,520원 □ 교무금: 1,695,8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정성스런 기도와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1. 모임: ①성모회-다음주일
②유아세례-다음주일 오전 9시
2. 주의 봉헌 축일: 2월2일, 초 축성 및 제대초 봉헌
3. 본당 발전을 위한 헌금: 오늘 미사중.
4. 사회복지주일: 다음주일(2차 헌금)
5. 예비자 입교 예식: 2월6일
6. 차주 전례: 해설-최원길, 독서①양주태 ②주영례
봉헌-유춘근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45,140원 □ 교무금: 259,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연중 제3주일! (세계 기아민을 위한 2차 헌금있음, 다음주일)
1. 전례 특별 교육: 1월30일(다음주일), 장소-강당(회비 천원) 참가 대상-해설자, 성가대, 반주자, 해설 배우고 싶으신 분들.
2. 초 축성: 2월2일(수) 저녁미사 때 각 가정에 쓰실 초 축성 바람, 3. 서품식: 1월31일(월) 오전 10시30분(중앙 성당) 본당 김정민(라자로) 학사님이 부제로 서품됩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4. 본당 학생회 임원: 회장-유성관(임마누엘), 부회장-박명수(요셉), 김혜진(로사)
금주 전례: 해설-유용산, 독서-이정환, 박민숙
차주 전례: 해설-김종호, 독서-최용주, 이영이

□ 지난주 봉헌금: 1,061,550원 □ 교무금: 983,5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 연중 제3주일.
◎ 오늘은 그리스도교 재일치를 위한 일치미사로 봉헌(교황님 특별 지함)
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위한 기도, 보속운동과 단식
2. 나눔자리: 차 판매(매주 공식미사 후) 많은 애용바람.
3. 일년 동안 제대에 쓸 봉헌 초: 사무실에 신청(주의 봉헌 축일에 축성)
4. 6학년 피정: 1월28일 진동 성당에서 9시30분~5시30분.
5. 다음주 2차 헌금(사회복지주일)
6. 청소 봉사: 5구역 3번, 4번.
□ 지난주 봉헌금: 621,600원 □ 교무금: 952,000원

*** 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성만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1. 금주: ①교구장 사목교서 연수회(대상: 사목임원,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②울프레이 남성46차 환영회(공식미사 후, 회원 전원 참석바람) ③성마리아Co(후 2시)
2. 성심유치원 개학: 24일(월)
3. 전례, 이미레네 수녀님 피정: 24일~2월3일까지(기도바랍니다)
4. 남성47차 꾸르실료 입교: 27일~30일, 김동욱(마태오), 손취부(요셉), 김관식(율리오), 조규화(베드로)
5. 남전주지구 초등부 6학년 피정: 28일(금) 오전 9시30분~후 5시 20분, 장소: 본당 소성당.
6. 설치회: 28일(금) 오후 8시.
7. 차주: ①사회복지주일(세계 기아민 돕기 2차 헌금) ②차량 축성식(공식미사 후)
8. 본당 신학생 김동춘(베드로) 수도회에서 교구로 전임.
□ 지난주 봉헌금: 2,055,85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감삼근

1. 꾸르실료 남성 47차 감습회: 27일~30일 윤인홍, 장현주.
2. 임마누엘 회원 첫 고백성사: 26일 전 10시, 직장인 저녁 7시.
3. 병자 봉성체: 27일 전 9시,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4. 자선의 날: 매주 토요일 저녁미사, 끝 수요일 어머니미사.
5. 중·고 동계 피정: 2월22일~24일 수류, 2월12일까지 접수.
6. 중·고 전례부원 연수: 25일~26일 나바위.
7. 반미사: 25일 10-4 전 10시, 10-5 후 3시, 11-1 후 8시, 28일 11-2 전 10시, 11-3 후 8시, 29일 8-1 전 10시30분.
8. 회의: 울프레이-오늘, 성소후원회-26일 어머니미사 후.
9. 성가대 입원개편: 단장-정화자, 부단장-김문선, 총무-김금순
10. 가정미사: 24일 저녁 8시, 우성 102동 1201호 윤석태 형제 대.
11. 혼인 강좌: 1월30일 전 9시30분 센터, 매월 끝주마다.
□ 지난주 봉헌금: 1,403,720원 □ 교무금: 1,066,000원

*** 회산동** 사제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성우
사목회장 한병갑

1. 사목교서 연수: 오늘 가톨릭센터, 2. 구역장 월례회: 오늘 낮 미사 후, 3. 견진 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 금요일 오후 7시30분.
4. 성가 연습: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5. M.B.W 교육: 28일(금) 오후 1시~30일(일) 오후 3시, 장소-수류 교육관, 6. 초·중·고요일 가족미사: 금주-신일, 차주-비사벌, 7. 청년 레지오 단원 및 교리교사 모집: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8. 꾸리실리스타 탄생: 이미화(마리아) 윤옥수(미카엘라) 9. 중고 전례부원 연수: 25일(화)~26일(수) 나바위 교육관 10. 중고생 동계 피정: 27일(목)~29일(토) 부모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11. 초 봉헌: 2월2일(수) 주의 봉헌 축일입니다, 12. 차주 전례: 김경숙, 손금규, 독서-봉헌-장순이, 김철환.
□ 지난주 봉헌금: 636,350원 □ 교무금: 445,000원

*** 효자동** 본당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성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동식

- ◎ 오늘은 연중 제 3주일입니다(오늘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위해 주일미사를 교황성하의 지함에 따라 봉헌합니다)
1. 꾸리아: 1월26일(수) 오전 10시.
2. 유아세례: 1월30일(일) 오후 4시(미리 접수하여 주십시오)
3. 축하합니다: 꾸리실리스타: 박경숙(마리안나) 유복래(가타리나)(27일-30일까지 교육자-김병섭(파스칼) 이동재(안드레아) 김정기(사도요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초·중·고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본당 청소년들의 전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남자 성가대 단원 모집합니다: 30세 이상으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432,380원 □ 교무금: 586,000원

*** 효자대전** 사제관 221-3721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정익도

1. 모임 안내: ①반회장 준비 모임-28일(금) 10시 미사 후.
2. 주의 봉헌 축일(2월2일): 제대초 봉헌 받습니다.
3. 축! 결혼: 23일(일) 13시 진동 성당
신랑-위대한, 신부-엄인영(엘리사벳)
* 차주 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차주 모임: 요셉회, 사목회, 신용협동조합 창립 교육
신축헌금 봉헌액: 6,212,000원
금주 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분형태 ②박춘근
봉헌 안내-김형일 부부
차주 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최영철 ②이옥희
봉헌 안내-김영길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619,080원 □ 교무금: 1,240,000원